

지각된 사회적 평판의 구성요소 : 진화심리학적 추론

이홍표
KRA 상담센터

한성열
고려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인간이 소집단에서 신뢰를 얻고 상호 협동의 대상이 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과정을 사회적 평판의 획득으로 보고, 진화적 측면에서 사회적 평판의 구성요소를 공감적 이타성, 책임감, 호혜적 신뢰성, 능력 유능감, 외모 유능감의 5가지로 가정하였다.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개인이 중요하다고 지각하는 사회적 평판의 구성요소가 무엇인지 언어적 보고 분석을 통해 탐색하고, 경험적 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지각된 사회적 평판의 주요 구성요소가 공감적 이타성, 책임감, 호혜적 신뢰성, 능력 유능감, 외모 유능감이 확인되었다. 지각된 사회적 평판 척도의 내적 일치도는 .90이었으며 사회적 지지 및 관계와 타협에 대한 신념과는 정적 상관, 자기중심성 및 적대감과는 부적 상관을 보여 수렴 타당도가 비교적 양호하였다. 진화심리학적 관점에서 사회적 평판의 구성요소와 그 의미에 대하여 논하였다.

주요어 : 사회적 평판, 진화심리학, 신뢰, 협동

진화론적 관점에서 인간은 집단을 형성하여 생활하였으며, 사회 안에서 경쟁하기도 하지만 협동하고 이타적으로 행동하도록 진화하였다(Axelrod, 1984; Cosmides & Tooby, 1992; Trivers, 1971). 그러나 협동 과정에서 배신과 이용, 착취 등 생존과 번식에 해가 되는 속임수(cheating)의 적응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으며(Cosmides & Tooby, 1992) 이러한 적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 세대간의 전파를 통해 전달된 심리적 기제 중의 하나가 사회적 평판이다.

사회적 평판이란 사전적 의미로는 “세상에 널리 퍼진 소문 또는 세상 사람들의 좋고 나쁨, 옳고 그름에 대한 집

단적 평가”를 의미한다(연세한국어사전, 1998). 즉 평판은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혹은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옳은지 아니면 그른지에 대한 평가이자 이러한 평가가 전파된 소문”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적 평판은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그 사람의 행동이 옳은지 집단 구성원들 간에 형성된 평가와 인식”으로 정의될 수 있다.

평판은 진화적 역사에서 소집단의 구성원들이 신뢰 대상을 판단할 때 이용되는 중요한 정보였다(Axelrod & Hamilton, 1981; Alexander, 1987). 진화심리학자 Cosmides(1989)에 따르면 “if-then”의 사회적 논리

이홍표는 KRA 상담센터, 한성열은 고려대학교 심리학과에 재직하고 있음.

교신저자 : 이홍표, (463-82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59-1 KRA 상담센터, 전화 : 031) 622-5994,

E-mail : youbefree@naver.com

(social logic)를 발전시켰다. 이러한 사회적 논리는 사회 교환 상황(social exchange situation)에 대처하기 위해, 특히 잠재적인 사기꾼을 탐지하기 위해 진화되었다. 이러한 논리에 의하면 평판이 나쁘면(if) 믿을 수 없고 변질 가능성이 높은 사람으로 평가되어(then) 협동 대상에서 제외되며, 생존과 번식, 좋은 배우자와 지위의 획득에 제한을 받는다. 나쁜 평판을 얻은 사람은 거절의 대상이 되는 반면 좋은 평판을 얻은 사람은 호혜의 대상이 된다(Ohtsuki & Iwasa, 204).

평판이 좋은 사람(goodness in reputation)의 정의에 대한 문제는 호혜성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중의 하나이며 (Fehr & Fischbacher, 2003; Ohtsuki & Iwasa, 2004) 지금까지 진화론적 관점에서 이루어진 많은 연구들에 의하면 사회적 평판이 사회적 교환 상황에서 맺게 되는 대인 관계의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데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Arrow, 1974; Axelrod & Hamilton, 1981; Mohtaashemi & Mui, 2003; Pruitt & Kimmel, 1977). 하지만 사회적 평판이 관계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주관적 판단과 사회적 평판의 상호작용은 어떠한지, 사회적 평판의 영향이 가역적인지 또는 비가역적인지 등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이렇게 사회적 평판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이유는 일차적으로 사람들이 인식하는 평판의 기준이 무엇인지, 어떤 평판을 받을 때 자신을 좋은 사람으로 인식하는지, 즉 사회적 평판을 구성하는 심리적 요소들이 무엇인지 규명되지 않았고 둘째, 사회적 평판을 정량화하여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의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진화심리학적 이론과 경험적 연구에 근거하여 사회적 평판의 심리적 구성요소를 추론할 때 사람들이 평판을 하거나 평판을 받으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구성요소에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있을 수 있다. 첫째, 일 혹은 능력과 관련하여 유능감(competence)이 있을 것이다. 유능감은 성차와 연관되어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첫째는 능력(ability)과 관련된 유능감, 둘째는 외모(appearance)와 관련된 유능감이다. Trivers(1972)의 양육 투자 이론(parental investment theory)과 성 선택 이론(sexual selection theory)에 따르면 여성은 자녀의 임신, 출생과 양육에 더 큰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배우자 선

택에 신중하며 자원이 많거나 획득 가능성이 높은 남성을 선호하도록 진화되었다. 반면에 남성은 매우 적은 투자로 번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젊음과 신체적 외모 등 번식적 가치(reproductive value)가 높은 여성을 선호하도록 진화되었다. 진화심리학적 연구 결과들은 이러한 가설을 지지하고 있는데 배우자 상대를 평가할 때 여성은 재정적 장래성의 가치를 남성보다 두 배 가량 높게 평가하며(Buss, Shakeford, Kirkpatrick, & Larson, 2001; Buss, Abbot, Angleitner, Ashrian, Biaggio and 45 other co-authors, 1990) 교육 수준과 전문성에 큰 가치를 둔다(Buss & Schmitt, 1993). 반면에 남성은 젊고 매력적인 여성을 선호하며(Buss & Schmitt, 1993; Buss, Shakeford, Kirkpatrick, & Larson, 2001), 실제로 신체적 매력도가 높은 여성은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수준이 높은 남성과 결혼하는 비율이 높다(Taylor & Glenn, 1976; Udry & Ekland, 1984). 여성에게 있어 신체적 매력은 지위 상승을 위한 중요한 요인이며, 이러한 남녀간의 성차는 문화적 다양성을 초월하는 보편적인 메카니즘의 산물로 보인다(Buss, 2004). 따라서 유능감에는 능력 및 신체적 매력과 관련된 평판이 작용할 것이다.

둘째, 책임감(responsibility; 혹은 성실성)이 있을 것이다. 유능하더라도 책임감이 없거나 부지런하지 않다면 맡은 일을 완수할 수 없으며, 따라서 신뢰도가 저하될 것이다. 사람들은 동맹을 결성할 때 바람직한 특성으로 지적이고 지식이 많으며 친절하고 수용적인 것 외에 남녀 모두 성실한 특성을 바람직하게 평가한다(Decay, Buss, & Stone, unpublished ms; Buss, 2004에서 인용). 또한 근면한 남성은 게으르고 무기력한 남성들보다 높은 직업적 위치를 차지한다(Kyl-Heku & Buss, 1996). 따라서 사람들은 책임감이 없는 사람들을 신뢰와 협동의 대상으로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유능감과 책임감 요소는 과제 중심적이며 능력과 관계된 차원이다. 그런데 능력에 대한 평판은 그 사람이 “뛰어난” 사람인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지는 않는다. 유능하거나 능력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좋은 평판을 얻을 수 없다. 유능한 사람은 높은 지위와 자원을 얻고, 지배 서열의 위에 설 가능성이 높으며, 높은 지위와 자원을 이용하여 타인을 착취하거나 사기를 칠 가능성도 높다. 따

라서 신뢰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능력 이외의 보다 보편적 차원의 요인들이 필요하다.

이러한 보편적 차원으로 셋째 *공감적 이타성*(sympathetic altruism)이 있을 것이다. 호혜적 이타주의 이론(reciprocal altruism theory; Axelrod, 1984; Axelrod & Hamilton, 1981; Cosmides & Tooby, 1992; Trivers, 1971)에 따르면 인간은 상호이득을 제공하는 협동의 심리적 메커니즘 및 이타주의적 행위의 진실성을 탐지해 내는 능력을 발전시켰다(Brown & Moore, 2000). 그래서 사람들은 친절하며 배려하고 수용적인 사람을 선호하며(Decay, Buss, & Stone; Buss, 2004에서 인용), 배우자 선택에서도 남녀 모두 친절하고 이해심이 있는 배우자를 선호한다(Buss & Barnes, 1986). 더욱이 공감능력이 높으면 자신의 정서를 잘 조절할 줄 알며, 이타적이고 친사회적인 행동이 증가된다(Hoffman, 1982; Eisenberg & Miller, 1986). 이타적인 사람은 자녀 양육에서도 보다 헌신적이고 충실하다. 사람들은 아동기부터 남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공감하는 법을 가르친다. 공감적 이타성은 타인에 대한 보답 행동을 발전시키는 기본이 된다.

넷째 *호혜적 신뢰성*(reciprocal trust)이 있을 것이다. 신뢰는 호혜성에 달려있다(Holmes & Rempel, 1989). Axelrod와 Hamilton(1981)의 반복된 죄수의 딜레마 게임(reiterated prisoner's dilemma game)은 신뢰와 협동이 자연발생적으로 진화하였음을 잘 보여준다. 이 게임에서 사람들은 항상 배신을 하거나 협동하는 다른 전략을 취할 수도 있지만 게임의 최종 승자는 언제나 호혜성을 추구하는 맞대응 전략(tit for tat)이었다. 맞대응 전략의 지침은 “첫째는 협동하라. 둘째 상대방이 배신하면 같이 배반하라. 셋째 상대방이 협동하면 용서하고, 다시 협동하라”이다. 맞대응 전략의 의미는 사람들은 베풀려 하며, 베풀면 보답할 줄 아는 호혜적인 사람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Yamagishi, Kikuchi 및 Kosugi(1999) 역시 신뢰를 “상대방의 호의에 기반하여 협동적이거나 친절한 행동을 기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렇게 호혜적 신뢰성은 호혜적 행동, 즉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받으면 보답하고 거짓말이나 사기 등 위선적 행동을 하지 않는 것 등을 포함한다.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고 배신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개인적인 손해를 보더라도 보답하지 않은 행동을 처벌하려는 강한 욕

구가 있으며(Berg, Dickhaut, & McCabe, 1995; Fehr, Fischbacher, & Gächter, 2002) 변질을 나쁜 것으로 간주한다(Ohtsuki & Iwasa, 2004). Axelrod와 Hamilton(1981)은 협동을 촉진하는 전략으로 호혜성의 교육을 들었다. 호혜성을 촉진시키면 다른 사람이 협동을 하게 만들 뿐 아니라 착취적인 전략을 쓰기 어렵게 만든다. 협동자는 자기들끼리 상호작용을 확장시켜 나가게 되고, 착취자는 약탈할 대상이 점점 더 적어지기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된다(Buss, 2004). 사람들은 호혜적으로 반응하려는 욕구를 발달시켰으며, 한 사회의 평균적 구성원들은 이러한 호혜적 성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평판의 구성요소를 밝혀내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 개발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1) 첫째, 기존의 진화심리학적 이론들에 대한 고찰을 통해 사회적 평판의 주요 구성요소들을 이론적으로 구성하고자 하였다. (2) 둘째, 이렇게 개념화된 구성요소들을 개방형 언어적 보고(verbal protocol)의 질적 분석을 통해 사람들이 사회적 평판에서 중요하다고 지각하는 구성요소들과 비교하였다. (3) 위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바탕으로 척도를 구성, 사회적 평판의 구성 요소를 경험적으로 검증하고 내적 일치도와 수렴 및 변별 타당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 1 :

개인이 지각하는 사회적 평판의 구성요소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개인에게 중요하다고 지각되는 사회적 평판의 구성요소들이 무엇인지 밝혀내고자 하였다. 첫째, 먼저 언어적 보고 분석을 통해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지각하는 사회적 평판의 요소들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를 연구 1에서 이론적으로 구성된 5개의 구성요소와 비교하고자 하였다.

대상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언어적 보고를 실시하였다. 참여 대상은 대전, 충남북 지역과 서울에 거주하는 대학생 자원자 109명 (1차 70명, 2차 64명)이었다. 1차 대상자 70명중 남성 35명(50.0%), 여성 35명(50.0%)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23.65세(SD=1.81), 연령분포는 만 19세부터 28세였다. 2차 대상자 64명 중 남성은 27명(42.2%), 여성은 37명(57.8%)이었고 평균 연령은 23.34세(SD=1.90), 연령분포는 만 19세부터 29세였다.

절차 및 방법

개인이 어떤 사회적 평판을 중시 여기는지 탐색하기 위해 먼저 질적 연구 방법으로 언어적 보고를 얻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언어적 보고 자료는 응답자 자신의 가치요소를 투사하며 개인이 중요하다고 지각하는 평판의 구성요소를 포괄적,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1차 대상자 58명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한 후 “여러분은 기분 좋게 하는 직접적, 간접적인 평판은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우울, 낙담하게 하거나 화나게 만드는 직접적, 간접적인 평판은 무엇입니까?”는 두 가지 질문을 제시한 후 가능한 한 5개 이상 응답하도록 하였다. 2차 언어적 보고에서는 51명의 대학생들에게 “여러분은 어떤 평판을 들을 때 자신을 좋은 사람으로 느끼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평판을 들을 때 자신을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느끼십니까?”는 두 가지 질문을 제시한 후 5개 이상

응답하도록 하였다. 언어적 보고를 할 때 “성격이 좋다, 착하다, 믿음직하다, 사랑한다”와 같이 의미가 모호하거나 동어 반복적인 문장은 제외하고 구체적인 문장이나 형용사로 응답하도록 제시하였다.

1차 자료는 동일한 의미의 응답이 많아 2개 질문을 하나로 통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과정에서는 의미가 모호하거나 동어 반복적인 응답은 제외하였고 동일한 의미를 표현하는 문장을 중심으로 대표적인 용어를 선택, 범주화하였다. 뜻이 다른 내용은 다른 항목으로 분류하였고, 뜻은 같지만 표현방식이 다소 다르거나 역으로 표현된 문항은 하나의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이렇게 분석된 범주별로 빈도를 계산, 반응 빈도가 참여인원의 10% 이상, 즉 각각의 세 가지 질문에서 최소한 7개 이상 응답한 문항을 선택하였다.

결 과

언어적 보고의 빈도분석 결과, 표 1과 같은 37항목이 추출되었다. 37항목에는 연구에서 가정된 지각된 사회적 평판의 5가지 구성요소를 반영하는 항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시사되었는데 특히 성실성, 책임감, 배려

표 1. 대학생 집단에서 추출된 지각된 사회적 평판의 주요 항목들

항 목	빈 도	항 목	빈 도
1. 성실함	33(15,9,8)	20. 약속을 잘 지킴	24(0,9,25)
2. 이야기를 진지하게 잘 들어줌	24(0,19,5)	21. 정직함	21(0,10,11)
3. 책임감	40(10,10,20)	22. 맡은 일을 끝까지 완수함	7(0,7,0)
4. 예의(매너)가 있음	21(8,13,0)	37. 노력(부지런함)	7(7,0,0)
5. 뽕뽕함	9(9,0,0)	24. 힘든 일이 있어도 밝게 웃음	13(0,13,0)
6. 친절함	13(0,13,0)	25. 어려울 때 같이 걱정, 격려	12(0,12,0)
7. 긍정적인 생각과 말	16(0,16,0)	26.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음	10(0,7,3)
8.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 행동	14(0,14,0)	27. 금전 거래가 깨끗함	12(0,0,12)
9. 배려심	46(14,27,5)	28. 시간 약속을 잘 지킴	20(0,0,20)
10. 말과 행동의 일관성	27(0,10,17)	29. 거짓말을 하지 않음	7(0,0,7)
11. 비밀을 잘 지킴	11(0,0,11)	30. 이야기를 남에게 옮기지 않음	7(0,0,7)
12. 일 처리를 잘 함	18(18,0,12)	31. 입이 무거움	9(0,0,9)
13. 인내심(끈기)이 있음	7(0,0,7)	32. 신중하고 사려깊게 생각, 행동	7(0,0,7)
14. 다른 사람 험담을 하지 않음	13(0,4,9)	33. 빈 말(과장)을 하지 않음	10(0,3,7)
15. 이기적(자기중심적)	13(13,0,0)	34. 능력이 있음	14(14,0,0)
16. 똑똑함	11(11,0,0)	35. 예뻐(잘 생겼음)	12(12,0,0)
16. 날씬함	10(10,0,0)	36. 외모가 매력적임	13(13,0,0)
18. 상대를 편안하게 해 줌	11(11,0,0)	37. 맡은 일을 열심히 함	24(11,7,6)
19. 자신감	9(9,0,0)		

주. 빈도는 세 가지 질문의 합산빈도이며, ()는 세 가지 질문 각각에 대한 반응빈도임.

심, 예의가 있음, 말과 행동의 일관성, 약속을 잘 지킴, 정직성 항목의 빈도가 높았다. 이는 사람들이 책임감이 있고 호혜적이며 이타적이라는 평판을 선호한다는 의미일 수 있다. 또한 질문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기분을 좋게 하거나 나쁘게 만드는 평판 질문에는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으며 일 처리를 잘 하고 똑똑, 능력 있다는 책임감과 능력 유능감 평판을 반영하는 항목들이 가장 많았다. 또한 외모가 매력적이고 이쁘거나 똥똥하다는 외모 유능감 평판을 반영하는 항목들의 빈도가 높았다. 반면에 좋은 사람으로 느끼게 하는 평판 질문에는 배려심이 있고 이야기를 잘 들어주며 같이 걱정, 염려해주고 친절하다는 등과 같이 공감적 이타성과 관계된 항목들이 가장 많았다. 또한 힘든 일이 있어도 밝게 웃고 긍정적인 생각과 말과 같은 낙관성 내지 긍정적인 정서를 반영하는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지각하게 하는 평판 질문에는 책임감, 말과 행동의 일관성, 비밀을 잘 지킴, 일 처리를 잘 함, 약속을 잘 지킴, 금전 거래가 깨끗함, 정직함 등 책임감이나 호혜성과 관련된 항목들이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개인의 기분을 좋게 하는 평판에는 책임감 외에 외모, 능력 등이 중요하지만 신뢰나 좋은 평판에는 공감적 이타성과 호혜성이 가장 중요한 차원으로 시사되었다. 책임감은 공통적으로 포함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서론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뛰어난 사람이라는 평판과 좋은 사람이거나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평판이 각기 다른 차원에 존재하는 개념이며, 나아가 유능감 평판, 호혜적 이타성 및 공감적 이타성 평판이 각기 다른 평판 차원에 존재하는 구성개념임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가정하지 않았던 낙관성 내지 긍정적이고 외향적인 정서를 반영하는 항목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시사되었다.

연구 2 :
지각된 사회적 평판 척도의 내적 일치도와
수렴 타당도

연구 목적 및 가설

연구 2에서 얻어진 평판의 구성요소 문항에 진화심리학적 논문과 저서 검토를 통해 얻어진 일부 문항들을 부

가하여 지각된 사회적 평판 척도를 구성한 후 경험적 방법에 의거하여 구성요소를 확인하고 내적 일치도를 알아 보고자 하였다. 또한 관계 신념, 자기중심성, 적대감, 지각된 사회적 지지, 우울 및 감사 성향와의 상관분석을 통해 수렴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관계 신념은 친밀한 관계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 신뢰와 타협을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 것으로 지각하고 있는가를 의미한다. 신뢰와 타협, 즉 상호간의 믿음과 양보에 대한 신념은 친밀감의 하위 요인으로써 상호 작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Fletcher & Kinnimoth, 1992). 따라서 공감적 이타성이나 호혜성과 상관이 높을 것으로 가정되지만 능력과 외모 등 유능감과는 상관이 없거나 적을 것으로 가정된다.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지각하는 지지 수준을 측정하는데 소속감과 평판에 대한 관심은 사회적 자기개념 형성에 매우 중요한 변인이며 서로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Sedikides, 2002). 사회적 연결이나 지지의 결여는 평판이 나쁘다고 지각하게 만들며 사회적 평판에 민감하게 만든다. 반면에 평판이 좋으면 소속감에 대한 욕구가 충족될 뿐 아니라 관계 형성에 민감하지도 않다(Cremer & Tyler, 2005). 따라서 좋은 평판과 사회적 지지에는 정적 상관이 있을 것이다. 이와 달리 자기중심성은 공감능력과 자책감의 부족, 대인관계에서의 자기중심성을 평가하며, 적대감은 부정적이고 냉소적이며 의심하는 태도로 세상을 지각하는 경향을 측정한다. Axelrod와 Hamilton(1981)의 게임 이론에서 호혜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변절자(defector)는 나쁜 평판을 받는다. 자기중심성은 자기애적 성향의 부정적인 중심 특성으로 자기애적 성향이 강한 사람은 상호 호혜성이 부족하고(차타순, 2002) 우월성을 추구하고 공격적이며(Penny & Spector, 2002) 적대감과 분노가 더 많다(Rhodewarf & Morf, 1998). 더욱이 호혜적이고 이타적인 감정의 발전은 공감과 자책이 있어야 가능하다. 공감은 이타적 행동과 정적 상관이 있으며(Batson, Duncan, Ackerman, Buckley & Birch, 1981) 공격적, 적대적인 행동과 부정 상관이 있다(Miller & Eisenberg, 1988). 호혜적 이타주의 관점에서 볼 때 공감력이 부족한 사람은 대인관계에서 상대의 감정에 둔감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공감하는 척 하면서 상대를 이용하고 착취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자기중심성은 공감적 이타성이나 호혜적 신뢰성 평판과 부정 상관

을 보일 것이다. 그러나 능력 및 외모 유능감을 반영하는 유능감 평판과는 상관이 없거나 정적 상관을 보일 것이다. 또한 자기중심성이 높을수록 적대감이 높는데(차타순, 2002), 적대감이 높은 사람은 공격적이고 냉소적이며 분노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와 관련, 사회적 성취를 추구하는 양식이 강한 사람은 적대적이고 공격적임과 동시에 협동하려하기 보다는 경쟁적이고 강한 야망을 보인다(Hecker, Chesney, Black & Frautschi, 1998; Dembroski, MacDougall, Costa & Gandits, 1989). 따라서 공감적 이타성이나 호혜적 신뢰성 평판이 낮은 사람은 적대적 경향이 높을 것이다. 이를 종합하면 공감적 이타성과 호혜적 신뢰성 등 지각된 평판 정도가 높을수록 신뢰와 타협에 대한 신념이 높고, 개인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 수준도 높을 것으로 가정된다. 반면에 자기중심성이나 적대감과 상관이 없거나 부적 상관을 보일 것으로 가정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우울감과 감사 성향(Grateful disposition)을 함께 측정하고자 한다. 사회적 평판이 긍정적일수록 생존과 번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되기 때문에 우울감과 같은 정신병리도 적을 것이다. 또한 감사 성향이 높을 것으로 예측되는데 Lazarus와 Lazarus(1994)는 자신의 삶에서 호의적인 상황을 만났다는 것을 인식하고 은혜를 베푼 사람이 그것을 베푸는데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공감할 때 나타나는 ‘공감적 정서’로 감사를 개념화하였다. McCullough, Emmons 및 Tsang(2002)은 감사하는 마음상태를 ‘도덕적 정서’ 상태로 보았는데 감사 성향은 자신이 친사회적인 대우를 받았다는 것을 인식할 때 나타나며 이를 통해 친사회적인 행동 및 도덕적인 행동을 수행하고 유지하도록 동기화 되며 파괴적인 대인관계 행동은 급하도록 동기화된다. 따라서 감사하는 사람들은 친사회적 성향과 공감력이 높으며, 사회적 평판과도 정적 상관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대 상

참여 대상은 서울과 대전, 충남북 지역에 거주하는 대학생 279명이었다. 이 중 자료 누락이나 일탈치가 많은 일부 피험자를 제외한 273명이 분석 대상이었다. 평균 연령은 20.61세(SD=2.08), 연령 범위는 만 18세에서 26세였으며 남성 124명(45.4%), 여성 149명(54.6%)이었다.

결혼 상태는 모두 미혼이었고 무교 142명(52.0%), 기독교 57명(20.9%), 천주교 38명(13.9%), 불교 34명(12.53%), 기타 2명(.08%) 순이었다.

관계신념 척도(Relational Belief Scale)

본 연구에서는 관계신념 척도(Fletcher & Kinninmonth, 1992)의 18개 하위 범주 중 신뢰 3문항, 타협 3문항을 이용하였다. 관계신념 척도는 친밀한 관계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지켜야 하는 신념을 측정하는 척도로서 존중, 대화, 타협과 같이 대인간 태도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춘 친밀성 신념 등 4개 요인, 18개 범주, 6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Fletcher와 Kinninmonth(1992)의 연구에서 4개 요인의 내적 일치도는 .51 이상,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64 이상이었다. 국내에서는 전영민과 박영숙(1997)에 의해 타당화되었으며 4개 요인의 내적 일치도는 .55에서 .90, 18개 범주의 내적 일치도는 .52에서 .74였다.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는 대인관계 질문지는 김정희(1992)에 의해 제작되었으며, 가족, 가까운 친척, 친구나 이웃들 등 가까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지각하는지를 측정하는 14개 문항,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김정희(1992)의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는 .96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내 주변사람들(가족, 친구, 친척, 이웃)”로 문항을 일부 수정하여 일반적으로 지각하는 지지 정도를 측정하였다.

자기중심성 척도(ANT-E)

본 연구에서는 PAI(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의 반사회성 임상 척도에서 공감능력이나 자책감의 부족 및 대인관계에서의 자기중심적 경향을 평가하는 자기중심성(ANT-E) 하위 척도 8문항을 선별, 사용하였다. PAI는 성격과 정신병리를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344문항, 22개 척도로 구성된 4지 선다형의 객관적 검사로써(Morey, 1991) 국내에서는 김영환, 오상우, 홍상황, 박은영(2002)에 의해 표준화되었다. 김영환, 김지혜, 오상우, 임영란, 홍상황(2001)의 타당화 연구에서 자기중심성의 내적 일치도는 .53~.62,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65~.72였다.

적대감 척도

적대감 척도는 공격성 질문지(Aggression Questionnaire; Buss & Perry, 1992)의 적대감 하위 요인 8문항에서 추출되었다. Buss & Perry(1992)의 공격성 질문지는 신체적 공격성, 언어적 공격성, 분노감, 적대감 등 4개 요인 29문항,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적대감은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방식으로 세상을 보는 태도로 정의된다(Buss & Perry, 1992). Buss & Perry(1992)의 연구에서 적대감의 내적 일치도는 .77,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72이었다. 서수균과 권석만(2002)의 국내 타당화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는 .76,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75였다.

자기평가 우울척도

자기평가 우울 척도(Self Rating Depression Scale; Zung, 1965)는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우울증상을 평가하는 척도로써 20문항,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종훈(1994)의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는 .84,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2였다.

감사 척도

본 연구에서는 McCullough 등(2002)의 감사척도(The Gratitude Questionnaire)를 이용하였다. 감사 척도는 감사 성향을 측정하는 6문항, 7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국내에서는 권선중(인쇄중)에 의해 타당화되었으며 내적 일치도는 .85,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77이었다.

절 차

언어적 보고 분석에서는 본 연구에서 기존의 이론적 개념화를 통해 가정한 다섯 가지 기본적 요소들이 비교적 잘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시사되어 문항을 수정하지 않았다. 다만 호혜적 신뢰성과 능력 유능감을 반영하는 항목들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Alexrod & Hamilton(1981), Buss & Schmitt(1993), Buss et al(2001), Buss(2004), Udry & Ekman(1984) 등의 선행 연구에 근거, 누적 반응빈도보다는 다소 낮았지만 “이용하지 않음, 속이지 않음, 배신하지 않음”과 “추진력, 리더쉽” 등 5개의 문항을 추가하여 42개의 문항형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낙관성 내지 외향적(긍정적) 정서, 비밀 유지 등 안면 타당도상 본 연구에서 가정하지 않았던 구성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러

한 요인들이 5가지 구성요소에 수렴되는지 아니면 개별 요인으로 분리, 지각된 사회적 평판의 구성요소로써 적절한 구성 타당도를 가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문항을 수정하거나 제외하지 않고 척도에 포함시켰다.

최종 선택된 42문항을 전혀 그렇지 않다(1)부터 보통이다(4), 매우 그렇다(7)까지 7점 척도로 구성하여 279명의 대학생들에게 실시하였다. 문항 제시는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라고 말한다”라는 형태로 제시하였다. SPSS 11.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통요인분석, 주축분해법, 사각회전에 의한 경험적 요인분석을 실행하였다. 지각된 사회적 평판의 요인들 간에 상관관계가 높을 것으로 가정되어 직교회전은 실행하지 않았다. 요인분석 과정에서는 요인 부하량 .3 이상, 공통분(communality) .4 이상, 문항-총점 상관 .3 이상을 기준으로 문항을 선택하였다. 또한 내적 일치도를 알아보았으며 관계신념 척도, 사회적 지지 척도, 적대감 척도, 자기중심성 척도, 우울 및 감사성향 척도와의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구하였다.

결 과

지각된 사회적 평판의 구성요소에 대한 경험적 요인 분석

273명을 대상으로 42문항을 분석한 결과, Bartlett test of Sphericity는 3295.15($df=325$, $p<.001$)로 변수들이 서로 독립적이었고 MSA(Kaiser-Meyer-Olkin measure of sampling adequacy)가 .845로 자료의 표본 적합도가 요인 분석에 적합하였다. 요인 분석의 문항 선택 기준에 따른 분석 결과, 26문항이 선택되었으며 선택된 26문항으로 eigenvalue가 1 이상인 요인이 6개 도출되었다. Scree test에서는 4~5개 요인이 적절함이 시사되었으며 6번째 요인은 .3 이상의 요인 부하량 기준을 충족시키는 문항이 없었다. 이에 따라 요인 수를 5개로 고정하여 사각 회전한 결과, 비교적 안정된 요인구조가 도출되었다.

요인분석 결과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요인 1은 배려심이 있고, 친절하며, 다른 사람 입장을 고려하고, 어려울 때 같이 걱정하는 등의 6문항으로 본 연구에서 가정한 공감적 이타성과 일치하였다. 요인 2는 매력적이고 뛰어난 외모에 대한 평판을 반영하는 4문항으로 외모 유능감과 일치하였다. 요인 3은 성실하고 책임감과 끈기가 있으며, 맡은 일을 열심히 한다는 내용의 6문항으로 책임감(혹은

표 2. 지각된 사회적 평판의 주축요인분석 패턴행렬과 내적 일치도(N=273)

문	항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공통분
1.	배려심이 있다고 말한다.	.857					.706
2.	친절하다고 말한다.	.779					.554
3.	예절이 바르고 매너 있다고 말한다.	.657					.586
4.	어려울 때 같이 걱정하고 격려해 준다고 말한다.	.518					.470
5.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한다고 말한다.	.517					.435
6.	다른 사람 이야기를 진지하게 잘 들어준다고 말한다.	.483					.408
7.	낯선하다(남자, 몸이 좋다)고 말한다.		.800				.629
8.	몸매가 좋다고 말한다.		.795				.636
9.	(외모가) 멋있다거나 매력적이라고 말한다.		.505			-.361	.523
10.	예쁘다(남자; 잘 생겼다)고 말한다.		.496			-.331	.472
11.	노력한다고 말한다.			-.749			.569
12.	인내심과 끈기가 있다고 말한다.			-.738			.514
13.	성실하다고 말한다.			-.683			.566
14.	맡은 일을 열심히 한다고 말한다.			-.627			.609
15.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 완수한다고 말한다.			-.578			.493
16.	책임감이 있다고 말한다.			-.410			.477
17.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723		.450
18.	비밀을 잘 지킨다고 말한다.				.655		.508
19.	둘이서 나눈 말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거나 옮기지 않는다고 말한다.				.653		.441
20.	다른 사람들에 관한 험담을 잘 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604		.419
22.	사람을 속이지 않는다고 말한다.				.531		.385
21.	정직하다고 말한다.				.517		.405
23.	사람을 배신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366		.401
24.	추진력이 있고 진취적이라고 말한다.					-.700	.592
25.	리더쉽이나 카리스마가 있다고 말한다.					-.667	.500
26.	능력이 있다고 말한다.					-.516	.475
교유근(eigenvalue)		7.63	2.62	2.41	1.63	1.28	
설명변량(%)		27.44	8.24	7.55	4.40	3.23	
Cronbach α(전체 척도=.90)		.85	.79	.86	.82	.78	

주. 요인 부하량 .3 이하는 제외. 요인 1=공감적 이타성, 요인 2=외모 유능감, 요인 3=책임 감, 요인 4=회색적 신뢰성, 요인 5=능력 유능감.

성실성)과 일치하였다.

요인 4는 비밀을 잘 지키고, 속이거나 배신,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에게 말을 옮기거나 험담을 하지 않는 등의 7문항으로 구성되어 주로 상호간의 지켜야 할 행위 규범, 즉 약속과 믿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시사된다. 요인 4는 본 연구에서 가정된 회색적 신뢰성과 유사한 것으로 시사된다. 요인 5는 추진력과 리더쉽이 있고 능력이 뛰어난 3문항으로 능력 내지 과제와 연

관된 유능감을 반영하는 바 본 연구에서 가정된 능력(과제) 유능감과 유사하였다.

26문항 5요인 구조가 전체 설명 변량의 50.86%를 설명하였으며 요인별로 보면 요인 1이 27.44%, 요인 2가 8.24%, 요인 3이 7.55%, 요인 4가 4.40%, 요인 5가 3.23%를 설명하였다. 공통분은 모두 .4 이상으로 양호하였으나 “사람을 속이지 않는다”는 문항은 5요인으로 고정, 회전 하였을 때 .385로 축소되었다. 요인 부하량은 모두 .3 이

표 3. 지각된 사회적 평판의 구성요소간 부분상관계수(N=273)

	공감적 이타성	외모 유능감	책임감	호혜적 신뢰성	능력 유능감
공감적 이타성	1.00				
외모 유능감	.30**	1.00			
책임감	.39**	.17**	1.00		
호혜적 신뢰성	.55**	.19**	.45**	1.00	
능력 유능감	.28**	.38**	.45**	.22**	1.00

**p<.01, 통계 변인=성차.

상으로 적절한 수준이었다.

하위 구성요소간의 상관을 본 결과 요인간의 상관이 모두 유의하였다. 남녀간에 지각된 사회적 평판의 구성요소에 평균 차이를 보였는 바, 성별을 통제한 후의 부분상관계수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결과를 보면 특히 공감적 이타성과 호혜적 신뢰성의 상관이 .55로 가장 높았으며, 책임감은 호혜적 신뢰성과 .45의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이타적이라는 평판과 상호간의 믿음 행동에 대한 평판 및 책임감 평판 간에 상호 관계가 있음을 반영한다. 능력 유능감과 외모 유능감 역시 .38의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능력 및 외모 유능감은 이타성이나 책임감과도 유의한 상관을 보였는데 능력이나 외모가 뛰어나다는 평판이 높을수록 이타적이고 책임감이 높다는 평판도 증가함을 반영한다.

결과를 보면, 본 연구에서 가정한 지각된 사회적 평판의 구성요소 중 공감적 이타성, 호혜적 신뢰성, 능력 유능감, 외모 유능감 등 5개의 구성요소가 지지되었다. 42문항 중 16문항은 요인 부하량이 낮거나 공통분 및 문항-총점 상관이 낮아 탈락되었다. 탈락한 16문항 중 “약속을 잘 지킨다. 시간 약속을 잘 지킨다” 두 문항 및 “빈 말을 하지 않음. 입이 무거움”의 두 문항들은 개별적인 요인으로 분리되었으나 문항 수가 너무 적었으며 “긍정적인 생각과 말, 힘든 일이 있어도 밝게 웃음” 등의 문항들도 하나의 요인으로 분리되고 문항 수가 적었다.

지각된 사회적 평판의 남녀 차이

표 4에서 지각된 사회적 평판의 평균 차이를 보면 남성이 여성에 비하여 대체로 지각된 사회적 평판을 긍정적으로 지각하였다 (남, $M(SD)=132.17(17.45)$, 여, $M(SD)=127.18(16.14)$, $df=1$, $F=5.87$, $p<.05$). 그러나 그 차이는

표 4. 지각된 사회적 평판의 성별 차이 검증(N=273)

		M(SD)	MS	F	Sig.
공감적 이타성	남	30.87(4.88)	241.33	9.45	**
	여	28.98(5.20)			
외모 유능감	남	16.58(4.70)	.20	.01	ns
	여	16.63(4.40)			
책임감	남	30.08(5.14)	107.40	4.04	*
	여	28.82(5.17)			
호혜적 신뢰성	남	35.53(5.81)	32.04	1.01	ns
	여	34.83(5.51)			
능력 유능감	남	13.97(3.26)	68.42	6.88	**
	여	12.96(3.07)			

*p<.05, **p<.01, 통계변인=성차.

크지 않았으며, 구성요소에 따른 성차가 있었다. 성차를 보면 외모 유능감 평판에서는 성차가 없었다. 반면에 능력 유능감 평판에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하여 긍정적인 지각을 하고 있었다. 호혜적 신뢰성에서도 성차는 없었으나 공감적 이타성 평판에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하여 긍정적인 지각을 하고 있었고, 책임감 평판에서도 남성이 여성에 비하여 다소 높은 평균을 보였다.

지각된 사회적 평판의 내적 일치도

지각된 사회적 평판의 내적 일치도는 .90으로 높은 편이었다. 문항-총점 상관에서 모두 .3 이하인 문항은 없었다. 구성요소별로 보면 요인 1 공감적 이타성 6문항의 Cronbach's α 는 .85, 요인 2 외모 유능감 4문항 .79, 요인 3 책임감 6문항 .86, 요인 4 7문항의 호혜적 이타성 .82였으며 요인 5 능력 유능감의 3문항도 .78로 연구가 가능한 적절한 수준이었다.

표 5. 지각된 사회적 평판과 신뢰와 타협에 대한 신념, 사회적 지지, 자기중심성, 적대 감, 우울, 감사성향과의 상관(N=273)

	지각된 사회적 평판	공감적 이타성	외모 유능감	책임감	호혜적 신뢰성	능력 유능감
관계신념(신뢰)	.27**	.25**	.05	.17**	.28**	.12*
관계신념(타협)	.32**	.29**	.07	.26**	.28**	.15*
사회적 지지	.46**	.40**	.26**	.24**	.37**	.28**
자기중심성	-.12	-.19**	.12*	-.16**	-.18**	.12
적 대 감	-.28**	-.25**	-.02	-.24**	-.25**	-.17**
우 울	-.37**	-.24**	-.18**	-.35**	-.18**	-.38**
감 사	.45**	.34**	.24**	.32**	.33**	.24**

* $p < .05$, ** $p < .01$

지각된 사회적 평판의 수렴 타당도

수렴 타당도 검증에 위하여 친밀한 관계에 대한 신뢰와 타협에 대한 신념, 사회적 지지 및 자기중심성과 적대감과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가설에서 예측한 바와 같이, 지각된 사회적 평판 척도는 신뢰와 타협에 대한 신념 및 사회적 지지와 .27~.46의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특히 공감적 이타성과 호혜적 신뢰성은 사회적 지지와 .40, .37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신뢰와 타협에 대한 신념과도 .29, .28의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책임감도 사회적 지지 및 신뢰와 타협에 대한 신념과 .17~.26의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반면에 자기중심성이나 적대감과는 -.12, -.28로 상관이 없거나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공감적 이타성과 호혜적 신뢰성 역시 자기중심성 및 적대감과 -.16~- .25의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사회적 평판과 우울은 -.18~- .38의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감사성향과는 .24~.34의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사회적 평판이 긍정적일수록 우울감이 적으며 고마움을 느끼고 감사하는 성향이 높은 것으로 시사되었다. 이러한 상관값이 높은 수치는 아니지만 지각된 사회적 평판의 수렴 타당도가 양호함을 반영하는 것으로 시사된다.

반면에 외모 유능감은 신뢰 및 타협에 대한 신념과 관계가 없었으며 자기중심성 및 사회적 지지와 .12, .26의 정적인 상관이 있었다. 또한 적대감과도 상관이 없었다. 외모에 대한 유능감 평판이 높을수록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고 약한 수준에서 자기중심적인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이는 외모 유능감이 공감적 이타성이나 호혜적 신뢰성 및 책임감과 구분되는 구성개념임을 지지하는 것으로 시사한다. 능력 유능감은 사회적 지지와 .28의 정적

상관을 보였다는 점에서 외모 유능감과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외모 유능감과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외모 유능감과 달리 타협 및 신뢰에 대한 신념과 .12, .15의 약한 수준에서 정적 상관을 보였고 적대감과는 -.17의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능력 유능감 평판이 강할수록 비적대적이며, 타협 및 신뢰에 대한 신념을 보인다는데 차이점이 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외모 유능감과 능력 유능감은 서로 구분되는 구성개념이며, 공감적 이타성, 호혜적 신뢰성 및 책임감과도 구분되는 구성개념으로 시사되었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진화심리학적 측면에서 사람이 소집단에서 신뢰를 얻고 상호교환의 대상이 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인 사회적 평판의 체계적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진화심리학적 측면에서 사회적 평판의 구성요소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론적, 경험적 논문과 저서 검토를 통해 사회적 평판의 구성요소를 진화심리학적 근거에 의거하여 추론하였다. 또한 언어적 보고와 경험적 분석을 통해 구성요소를 검증하고 내적 일치도와 수렴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진화심리학적 관점에서 능력 유능감, 외모 유능감, 공감적 이타성, 책임감, 호혜적 신뢰성의 5가지 지각된 사회적 평판 구성요소가 추론, 개념화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척도를 구성하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경험적 요인 분석을 수행한 결과, 26문항이 최종 선택되었으며 가 정된 능력 유능감, 외모 유능감, 공감적 이타성, 책임감, 호혜적 이타성 평판의 5가지 구성요소가 확인되었다. 1요

인은 친절하며 배려를 잘 하고 격려하고 같이 걱정해 주는 등의 평판으로 공감적 이타성을 반영하였다. 2요인은 매력적이거나 이쁘다, 날씬하다는 등 외모에 대한 긍정적 평판으로 외모 유능감과 일치하였다. 3요인은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으며 맡은 일을 열심히 끝까지 잘 완수한다는 평판으로 책임감을 반영하였다. 4요인은 상호간에 비밀을 잘 지키고, 속이거나 거짓말, 배신을 하지 않으며 정직하다는 등의 평판으로 호혜적 신뢰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시사되었다. 5요인은 추진력, 리더십,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판으로 능력(과제) 유능감을 반영하는 것으로 시사되었다.

지각된 사회적 평판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90으로 높은 수준이었고, 각 구성요소의 내적 합치도 역시 .78~.86으로 양호하였다. 또한 지각된 사회적 평판, 특히 공감적 이타성과 호혜적 신뢰성, 책임감 평판은 친밀한 관계에서의 상호 신뢰와 타협에 대한 신념 척도 및 사회적 지지 척도와 정적인 상관을 보였으며 우울감이 적고 고마움을 느끼고 감사하는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기중심성 및 적대감 척도와 상관이 없거나 부적 상관을 보여 수렴 타당도가 양호한 것으로 시사되었다. 구성요소 중 외모 유능감은 신뢰 및 타협에 대한 신념과 관계가 없고 자기중심성 및 사회적 지지와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었다. 능력 유능감은 사회적 지지와 정적 상관이 있었지만 적대감과 부적 상관을 나타내고 타협 및 신뢰에 대한 신념과 정적 상관을 보인다는 점에서 외모 유능감과 다른 구성개념으로 시사되었다. 외모 유능감과 능력 유능감은 서로 구분되는 구성요소이며 공감적 이타성, 호혜적 신뢰성 및 책임감과도 구분되는 구성요소로 시사되었다.

낙관성 내지 외향적 정서, 약속, 빈 말을 하지 않고 입이 무거움 등의 항목이 개별 요인으로 분리되었으나 문항 수가 적고 요인 부하량과 공통분이 낮아 탈락되었다. 이러한 항목들을 지각된 사회적 평판의 구성요소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으나 중요도나 기여도 면에서 5가지 구성요소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시사된다.

좋은 사회적 평판은 집단과 사회를 이루어 살아가는 인간, 나아가 모든 유기체에 필수적인 요인이다. 소집단에서 진화된 인간에게 소속감과 관계의 욕구는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이다(Baumeister & Leary, 2003). 사회적 수용은 인간의 심리적 안녕감과 자존감 유지에 필수적인 요인으로(La Guardia, Couch, Couchman, & Deci, 2000)

수용 받거나 환영 받는 것은 행복, 만족감, 침착함과 같은 긍정적 정서를 유발하는 반면(Baumeister & Leary, 2003) 집단으로부터 거절을 당하거나 배척, 고립되는 것은 자기상의 손상과 부정적인 정서를 유발한다. 사회적 거절이나 소속감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불안과 우울의 주요 원인이다(Baumeister & Tice, 1993; Leary, 1990; Tamber & Leary, 1993). 이 때 나쁜 평판은 신뢰 상실과 거절의 신호일 수 있다. 평판은 상호작용에 핵심적인 요인으로(Alexander, 1987; Mohtashemi & Mui, 2003) 평판을 잃으면 신뢰를 잃고, 신뢰를 잃으면 호혜의 대상에서 탈락하게 된다.

좋은 평판은 진화적 역사에서 볼 때 지위 경쟁과 배우자 획득, 자원 획득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 중 유능하다는 평판은 지위 경쟁과 자원 획득에 중요한 요인으로 본 연구에서도 능력 유능감과 외모에 대한 유능감 구성요소가 구분,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남성들이 평균적으로 여성에 비하여 능력과 관련된 유능감 평판을 긍정적으로 지각하였던 반면 여성에게서 중요한 자원인 외모에 대한 긍정적 평판에서는 평균값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남성이 능력과 연관된 평판에 보다 민감함을 반영할 수 있는 것으로 시사되지만 능력 및 외모에 대한 유능감이 성차에 따라 얼마나 중요한지는 분명하지 않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남성은 보다 독립적이며, 능력에 기초하여 자신을 정의하려 한다(Cross & Madson, 1997). 유능하다는 평판은 높은 지위와 자원 획득의 가능성을 증진시키며, 진화적으로 자원과 지위는 번식 가능성을 높인다.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경제적 자원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며(Buss, 1989), 재정적 잠재성이 높은 남성을 선호한다(Wiederman, 1993). 자원이 많고 지위가 높은 남성은 많은 여성들에게 성적 접근을 할 가능성(Perusse, 1993; Buss, 2004), 매력적인 여성과 결혼할 가능성이 높다(Elder, 1969; Taylor & Glenn, 1976; Udry & Eckland, 1984). 반면에 남성은 젊은 여성을 선호하며(Kenrick, Keefe, Gabrielidis, & Comelius, 1996), 신체적 매력과 멋진 외모를 더 중요하고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하는 반면 여성은 남성의 신체적인 매력을 바람직한 것이 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Buss et al., 2001). 따라서 능력 및 외모 유능감 평판의 성차에 따른 진화심리학적 중요도는 이 두 구성요소가 자기만족감이나 심리적 안녕감, 그

리고 짝짓기와 자원 획득 등 생존과 번식에 미치는 영향이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유능하다는 평판만으로는 신뢰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 유능한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이용하여 타인을 지배하거나 착취하고 이용할 가능성도 높다. 본 연구에서 능력 및 외모 유능감 평판이 높을수록 자기중심성도 다소 증가한다는 것은 이러한 사실을 간접적으로 반영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사람들은 유능한 사람을 시기하고 평판을 안 좋게 하려 할 수도 있다. 지위가 높은 인물이 추락할 때 사람들은 즐거움을 느끼며, 이 때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은 시기이다(Feather, 1994). 사람들은 성공한 동료들을 깎아 내리고, 친밀한 관계를 잘 맺지 않으려 한다(Salovey & Rodin, 1984). 또 다른 측면에서 볼 때 높은 지위를 얻거나 자원을 획득하는데 개인의 유능감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유능하더라도 평판이 나쁘면 호혜적 상호작용에서 제외되어 지위 경쟁이나 자원 획득의 기회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집단성원이 높은 관심과 좋은 평가를 부여하면 그 사람의 지위는 상승한다. 그러나 무시당한 사람은 지위가 떨어진다(Gilbert, 2000). 영장류의 위계서열은 신체적 힘이나 크기보다는 자신을 지지하는 동맹세력을 얼마나 모을 수 있는가에 달려있으며(Cummins, 1998; Buss, 2004) 동맹세력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

따라서 유능감 평판 외에도 상대가 과연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인지에 대한 기본적 평가가 필요하며, 이러한 차원에 이타성과 호혜적 신뢰성에 대한 평판이 있다. 호혜적 이타주의에 따르면 인간은 상호이득을 위한 협동의 메커니즘 및 이 때 발생할 수 있는 속임수나 사기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속임수를 탐지하는 메커니즘을 진화시켰다(Cosmides & Tooby, 1992). 이 때 공감적 이타성과 호혜적 신뢰성의 평판은 협동 상대 판단, 속임수 탐지에 사용되는 중요한 정보로 시사된다. 공감적 이타성은 다른 사람을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타적이라는 평판이 높은 사람은 타인을 이용하거나 착취할 가능성이 그만큼 적다. 호혜적 신뢰성에 대한 평판은 호혜적 이타주의에서 주장하는 바와 일치한다.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정직하며, 비밀을 잘 지키고, 들이 나눈 말을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않는 사람을 선호한다. 이러한 행위들은 상호간에 지켜야 할 행위 규범으로써 친밀감과 신뢰를 결

속시킬 것이다. 역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들이 나눈 말을 누설하고, 비밀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믿을 수 없다고 판단되어 협동의 대상에서 탈락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들을 지니고 있다. 첫째 개인이 지각하는 사회적 평판이 인간에게 중요한 자원이 라면 정신 건강이나 실제 사회적 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심리적 안녕감이나 심리적 장애 및 사회적 관계에 미치는 효과가 검증되지 못하였는 바, 이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연구대상이 대학생으로 한정되었고 준거 타당도가 확인되지 못하였는 바, 타당화 작업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언어적 보고에서 낙관성 내지 긍정적 정서, 약속 등의 항목들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항목들이 연구자가 가정하지 못한 사회적 평판의 중요 구성요소들일 수도 있는 바, 이론적 가정과 경험적 자료를 근거로 한 보다 구체적인 평판의 구성요소 확립이 필요할 수도 있다.

진화심리학에서는 일차적으로 마음이 왜 이러한 형상으로 조형되고 설계되었는지, 그 메커니즘이나 구성요소들은 무엇인지에 관심을 둔다(Buss, 2004).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왜 사회적 평판의 구성요소가 설계, 내장되었는지 진화심리학적 측면에서 가설화하고 경험적으로 확인한 것이며, 진화심리학적 가설의 검증을 수행한 것은 아니다. 사회적 평판의 중요성과 구성요소는 다른 이론적 접근에 의해서도 설명될 수 있다. 진화심리학인 가설의 진정한 검증을 위해서는 사회적 평판이 자원 획득과 짝짓기의 성공 등 생존과 번식에 미치는 영향력이 검증되어야 하며, 이는 추후 과제로 맡겨져 있다. 본 연구는 사회적 평판에 대한 진화심리학적 검증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또한 평판이 개인의 생존과 번식, 정신 건강이나 심리적 문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 김정희 (1992). 중년여성의 적응과 일상적 스트레스 및 정서적 경험의 관계 : 심리적 자원과 사회적 자원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과 심리치료, 4(1), 54-63.

- 김영환, 오상우, 홍상황, 박은영 (2002). PAI의 임상적 해석. 학지사.
- 김영환, 김지혜, 오상우, 임영란, 홍상황 (2001). PAI 표준화연구 : 신뢰도와 타당도. 한국 심리학회지 : 임상, 20(2), 311-329.
- 권선중, 김교현, 이홍석 (인쇄중). 한국판 감사성향 척도 (K-GQ-6)의 신뢰도 및 타당도. 한국심리학회지 : 일반.
- 서수균, 권석만 (2002). 한국판 공격성 질문지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21(2), 487-501.
- 이중훈 (1995). 한국형 자기평가 우울척도의 개발. 영남의대 학술지, 12(2), 292-305.
- 언어정보개발연구원 (1998). 연세 한국어사전. 두산동아, 서울.
- 전영민, 박영숙 (1997). 관계신념 척도의 타당도 및 신뢰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16(1), 101-116.
- 차타순 (2002). 자기애적 성격성향자의 자존감과 적대감에 관한 연구. 수산해양교육연구, 14(1), 95-114.
- Alexander, R. D. (1987). *The biology of moral systems*. New York : Aldine DeGruyter.
- Arrow, K. (1974). *The limits of organization*. New York : Norton.
- Axelrod, R. (1984). *The evolution of cooperation*. New York : Basic Books.
- Axelrod, R., & Hamilton, W. D. (1981). The evolution of cooperation. *Science*, 211, 1390-1396.
- Batson, C. D. Duncan, B. D., Ackerman, P., Buckley, T., T., & Birch, K. (1981). Is empathetic emotion a source of altruistic motiv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0, 290-302.
- Baumeister, R. F., & Leary, M. R. (2003). The need to belong : Desire for interpersonal attachments as a fundamental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Bulletin*, 3, 497-529.
- Baumeister, R. F., & Tice, D. M. (1993). Anxiety and social exclusion.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9, 165-195.
- Berg, J., Dickhaut, J., & McCabe, K. (1995). Trust, reciprocity, and social history. *Games and Economic Behavior*, 10, 122-142.
- Brown, W. M., & Moore, C. (2000). Is prospective altruistic-detection an evolved solution to the adaptive problem of subtle cheating in cooperative ventures? Supportive evidence using the Wason selection task. *Evolution and Human Behavior*, 21, 25-37.
- Buss, D. M. (1989). Sex differences in human mate preferences : Evolutionary hypothesis testing in 37 cultures. *Behavioral and Brain Sciences*, 12, 1-49.
- Buss, D. M. (2004). *Evolutionary psychology : The new science of the mind*. 2nd Ed. Person Education, Inc : Allyn & Bacon.
- Buss, D. M., Abbot, M., Angleitner, A., Ashrian, A., Biaggio, A., & 45 other co-authors. (1990). International preferences in selecting mates : A study of 37 culture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21, 5-47.
- Buss, D., & Barnes, M. (1986). Preference in human mate sele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 559-570.
- Buss, A. H., & Perry, M. (1992). The aggression questionnai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 452-459.
- Buss, D. M., & Schmitt, D. P. (1993). Sexual strategies theory : An evolutionary perspective on human mating. *Psychological Review*, 100, 204-232.
- Buss, D. M., Shackelford, T. K., Kirkpatrick, L. A., & Larsen, R. J. (2001). A half century of American mate preferenc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3, 491-503.
- Cosmides, L. (1989). The logic of social exchange : Has natural selection shaped how human reason? Studies with the Wason selection task. *Cognition*, 31, 187-276.
- Cosmides, L., & Tooby, J. (1992). Cognitive adaptations for social exchange. In J. Barkow, L. Cosmides, & J. Tooby(Eds). *The adapted mind*(pp.163-228).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 Cremer, D. d., & Tyler, T. R. (2005). Am I respected or not? Inclusion and reputation as issues in group membership. *Social Justice Research, 18*, 2, 121-153.
- Cross, S. E., & Madson, L. (1997). Models of the self : Self-construals and genders. *Psychological Bulletin, 122*, 5-37.
- Cummins, D. D. (1998). Social norms and other minds : The evolutionary roots of higher cognition. In D. D. Cummins, & C. Allen(Eds.), *The evolution of mind*(pp.30-50).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 DeKay, W. T., Buss, D. M., & Stone, V. (2004) Coalitions, mates, and friends; Toward and evolutionary psychology of relationship preferences. In D. M. Buss(Ed). *Evolutionary psychology : The new science of the mind*. Person Education, Inc : Allyn & Bacon.
- Dembroski, T. M., MacDougall, J. M., Costa, P. T., & Grandits, G. A. (1989). Antagonistic hostility as a predictor of coronary heart disease in the multiple risk factor intervention trial. *Psychosomatic Medicine, 51*, 514-522.
- Eisenberg, N., & Miller, P. A. (1987). The relation of empathy to prosocial and related behaviors. *Psychological Bulletin, 10*, 91-119.
- Elder, G. H., Jr. (1969). Appearance and education in marriage mobilit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4*, 519-533.
- Feather, N. T. (1994). Attitude toward achievers and reactions to their fall : Theory and research concerning tall poppies.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6*, 1-73.
- Fehr, E., & Fischbacher, U. (2003). The nature of altruism. *Nature, 425*, 785-791.
- Fehr, E., Fischbacher., & Gächter. (2002). Strong reciprocity, Human Cooperation and the enforcement of social norms. *Human Nature, 13*, 1-25.
- Fletcher, G. J. O., & Kinninmonth, L. A. (1992). Measuring relational beliefs : An individual differences scal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26*, 371-397.
- Gillbert, P. (2000). The relationship of shame, social anxiety and depression : The role of the evaluation of social rank. *Clinical Psychology and Psychotherapy, 7*, 174-189.
- Hecker, M., Chesney, M., Black, G., & Frautschi, N. (1988). Coronary-prone behaviors in the western collaborative group study. *Psychosomatic Medicine, 50*, 153-164.
- Hoffman, M. L. (1982). Development of prosocial motivation : empathy and guilt. In N. Eisenberg(Ed.), *The development of prosocial behavior*. New York : Academic Press.
- Holemes, J. G., & Rempel, J. K. (1989). Trust in close relationships. In M. Clark (Ed.), *Close relationships : Review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Vol.0, pp.187-220). Newbury Park, CA : Sage.
- Kenrick, D. T., Keefe, R. C., Gabrieniadis, C., & Comelieus, J. S. (1996). Adolescents' age preferences for dating partners : Support for an evolutionary model of life-history strategies. *Child Development, 67*, 1499-1511.
- Kyl-Helu, L. M., & Buss, D. M. (1996). Tactics as units of analysis in personality psychology : An illustration using tactics of hierarchy negotiat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1*, 497-517.
- La Guardia, J., Ryan, R. M., Couchman, C., & Deci, E. L. (2000). Within-person variation in security of attachment : A self-determination theory perspective on attachment, need fulfillment, and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 367-384.
- Lazarus, R. S., & Lazarus, B. N. (1994). *Passion and reason : Making sense of our emotions*.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 Leary, M. R. (1990). Responses to social exclusion : Social anxiety, jealousy, loneliness, depression,

- and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 221-229.
- McCullough, M. E., Emmons, R. A., & Tsang, J. (2002). The grateful disposition : A conceptual and empirical topography.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82(1), 112-127.
- Miller, P. A., & Eisenberg, N. (1988). The relation of empathy to aggressive and externalizing/antisocial behavior. *Psychological Bulletin*, 101, 324-344.
- Mohtashemi, M., & Mui, L. (2003). Evolution of indirect reciprocity by social information : The role of trust and reputation in evolution of altruism. *Journal of Theoretical Biology*, 223, 523-531.
- Morey, L. C. (1991). *The 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 professional manual*. Odessa, FL :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
- Ohtsuki, H., & Iwasa, Y. (2004). How should we define goodness?-reputation dynamics in indirect reciprocity. *Journal of Theoretical Biology*, 231, 107-120.
- Rhodewart, F., & Morf, C. C. (1998). Self and interpersonal correlates of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 A review and new finding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29, 1-23.
- Penny, L. M., & Spector, P. E. (2002). Narcissism and counterproductive work behavior : Do bigger egos mean bigger problems? *International Journal of Selection and Assessment*, 10, 1, 126-134.
- Perusse, D. (1993). Cultural and reproductive success in industrial societies : Testing the relationship at proximate and ultimate levels. *Behavioral and Brain Sciences*, 16, 267-322.
- Pruitt, D. G., & Kimmel, M. J. (1977). Twenty years of experimental gaming : critique, synthesis, and suggestions for the future. *Annual Review of Psychology*, 28, 363-392.
- Salovey, P., & Rodin, J. (1984). Some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social-comparison jealous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7, 780-792.
- Sedikides, C. (2002). Putting ourselves together : Integrative themes and lingering questions. In J. P. Forgas, & K. D. Williams(Eds). *The Social self : Cognitive, interpersonal and intergroup perspectives* (pp.65-380). New York : Psychology Press.
- Tamber, E. S., & Leary, M. R. (1993). *Perceived exclusion as a common factor in social anxiety, loneliness, jealousy, depression, and low self-esteem*. Manuscript submitted for publication.
- Taylor, P. A., & Glenn, N. D. (1976). The utility of education and attractiveness for females' status attainment through marriag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1, 484-498.
- Trivers, R. L. (1971). The evolution of reciprocal altruism. *Quarterly Review of Biology*, 46, 35-57.
- Trivers, R. L. (1972). Parental investment and sexual selection. In B. Campbell (Ed.), *Sexual selection and in the descent of man*(pp.136-179). Chicago : Aldine.
- Udry, J. R., & Eckland, B. K. (1984). Benefits of being attractive : Differential payoffs for men and women. *Psychological Reports*, 54, 47-56.
- Walster, E., Berscheid, E., & Walster, G. W. (1973). New directions in equity resear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5, 151-176.
- Wiedermann, M. W. (1993). Evolved gender differences in mate preferences : Evidence from personal advertisements. *Ethology and Sociobiology*, 14, 331-352.
- Yamagishi, T., Kikuchi, M., & Kosugi, M. (1999). Trust, gullibility, and social intelligence. *Asi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 145-161.
- Zung, W. W. K. (1965). A self-rating depression scale. *Archive of General Psychiatry*, 12, 63-70.

The Search for Components of Perceived Social Reputation from a Point of Evolutionary Psychology

Heung-Pyo Lee

Counselling Center, Korea Racing Association

Seong-Yeul Han

Korea University

Acquirement an social reputation was fundamental task for taking trust and social cooperation in small group and society from a evolutionary psychological perspective. In this study, components of perceived social reputation which to great important to person were assumed as five elements which of sympathetic altruism, responsibility, reciprocal trust, ability competence, appearance competence from a evolutionary psychological perspective. In study result, our hypothesis was proved that main components of perceived social reputation are sympathetic altruism, responsibility, reciprocal trust, ability competence, appearance competence. Internal consistency of perceived social reputation scale was appropriate(.90). And it was showed that perceived social reputation scale is positively correlated to gratitude, social support and belief for trust and compromise, but negatively correlated to hostility, depression and ego-centrism, so convergent validity was relatively good. Implication of social reputation was discussed from a evolutionary psychological perspective.

Key Words : social reputation, evolutional psychology, trust, cooperation

원고접수 : 2006년 5월 24일

심사통과 : 2006년 6월 15일